

# “5·18 진상규명·오월단체 화합에 최선 다할 것”

###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 선출

### 5·18 당시 내란 수괴로 지목

### 사형 선고 받았으나 특별사면

### 신군부 고문 폭로 등 활동 다양



이·취임식은 5월 초에 진행할 예정이며, 첫 일정으로는 3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정동년(77) 전 광주민중항쟁연합 의장이 최근 5·18기념재단 제14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3년.

5·18기념재단은 최근 열린 5·18기념재단 이사회의에서 정 신임 이사장을 재단 발전과 안정적 운영을 이끌 책임자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했다. 이사회는 정 이사장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점과 그간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을 위해 해 온 활동 등을 높이 평가했다.

정 이사장은 지난 1964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았으며, 1965년 한일교육외교반대 투쟁을 이끌다 구속·제적당했다. 전남대 복학생이던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내란 수괴로 지목돼 군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1982년 12월 성탄절 특별사면조치로 석방됐다.

정 이사장은 이후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에 헌신했다. 1980년대에는 5·18유가족과 부상자와 함께 안기부의 5·18구묘역 없애기 공작에 맞섰으며, 1988년에는 국회 광주청문회에 나가 신군부의 고문 수사를 폭로했다. 1995년에는 검찰이 전두환,

노태우 등 5·18관련 책임자 35명을 불기소 처분하자, 이에 맞서 수사 결과를 검증하는 역할도 맡았다. 지난 2010년에는 5·18 30주년 기념 행사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민주쟁취국민운동본부 공동의장, 5·18민중항쟁 30주년기념행사위원회 상임행사위원, 이철규사건규명대책위 공동의장, 광주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정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이 시대를 비추는 큰 희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5·18기념재단의 더 넓고 깊은 활동, 5·18진상규명, 오월단체의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박상철 호남대 총장 ‘저출산 극복 챌린지’ 동참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최근 ‘저출산 극복 함께해요, 법국민 포(4)합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저출산 이가져올 국가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하자는 국민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으로, 저출산 극복 캐치 프레이즈가 적힌 사진 또는 동영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한 뒤 1주일 단위로 후속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 총장은 다음 참여자로 한국산학협동연구원 김보근 이사장과 해양에너지 김경순 사장을 지목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정진석 추기경, 통장 잔고 800만원

### 치료·장례과정 수고한 사제 등에 성금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고(故) 정진석 추기경이 통장에 남긴 약 800만원을 서울 지역 화폐로 교환해 그의 병 치료와 장례 과정에서 수고한 서울대교구 사제, 직원, 의료진, 봉사자, 2005년 그가 직접 설립한 교구 생명위원회에 감사 성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울대교구는 전했다.

정 추기경은 지난 2월 22일 건강 악화로 입원하게 되자 사흘 뒤인 25일 자신의 통장 잔액을 꽃동네(2000만원), 명동불탑(1000만원), 서울대교구 성소국(동성교 예비신학생만·2000만원), 교구 청소년 아동신앙교육(1000만원), 가정 정진석 추기경 선교장학회(5000만원)로 직접 지정해 모두 기부한 바 있다.

이후 선종까지 두 달 여간의 입원 기간 교구에서 매일 지급 해온 돈과 보존해 참전수당 등이 통장에 쌓이면서 잔고가 다시 약 800만원으로 불어났다.

정 추기경은 선종이 다가오면서 자신의 마지막 통장 잔고를 치료과정에서 수고하신 의료진과 수녀, 봉사자들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영광 대신항 구수·대신마을, 5년만에 풍어제 개최



영광 대신항 2021년 풍어제가 지난 30일 구수대신 어촌계원 및 마을주민 100여명, 영광군·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신항에서 열렸다. 5년만에 다시 개최된 풍어제는 마을 전통행사로 만선과 풍어를 기원하는 동시에 어민들의 무사안락, 마을 주민들의 화합 및 단합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구수대신마을은 지난 2020년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방파제 및 어항 여건 개선, 소득 향상과 관광개발 등을 위한 다양

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씨앗 단계” 사업비 500만원을 받아 귀어귀촌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련했다.

박복이(60) 구수대신 어촌계장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4명의 도시민이 귀어해 마을에 활력을 주고 이번 행사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 김우열 현대아미스 회장, 베트남 가정에 의료비 지원



김우열 현대아미스(주) 회장이 최근 베트남 가정 자녀를 위한 긴급의료비 500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사진>

1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근 조선대병원으로부터 한 베트남 부부가 곤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부를 결심했다. 갓 태어난 아이가 건강에 이상이 있어 급히 조치해야 하는데, 국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비를 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부부와 아이가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조선대병원 측에 긴급의료비를 전달했다.

김 회장은 “베트남 아이가 한국에서 건강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조선대병원이 함께 힘써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광주 아너소사이터 81호 회원으로서 지역 내 나눔문화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TV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아모르파티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속아도 꿈결(재) 40 지구촌 뉴스	45 손현주의 간이역 스페셜	10 SBS 뉴스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재난탈출 생존왕 스페셜 50 불편해도 괜찮아 55 한국의 인류유산	00 영화가 좋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연중 라이브(재)	00 12 MBC 뉴스 20 시크릿 주주 별의여신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행복특재 일빠배기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쇼케이스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35 미니다큐(재)	00 KBS 뉴스타임 10 룽롱죽겠지 30 TV 유치원	20 이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류수영의 동물티비(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엘리가 간다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최중우를 만국 유망기 캠핑 인 코리아	00 SBS 오뉴스 35 KBC저녁뉴스 50 특집 내고향 전파(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오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시사타이티! 따따부따(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우리말 겨루기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속아도 꿈결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오월의 청춘	20 안싸우면 다형이야	00 생활의 달인
10	00 가요무대	40 개는 훌륭하다	40 가정의 달 특집 100분토론	15 통상이몽2너는 내운명
11	00 더 라이브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5 나이트라인
12	10 다큐 온(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통합뉴스룸 ET	10 스포츠 매거진 50 모두의 예술	25 앙코르 내고향 전파 스페셜

##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마사와 곰
05:5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5 포텐독
06:1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글로벌 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07: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2:10 아주 특별한 기행 - 한국을 담다	18:00 생방송 방과 후 토크
07:1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3:00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19:05 드래곤 길들이기: 세상 끝으로
07:30 두다다쿵	14:10 EBS 다큐프라임	19:35 자이언트 팽TV
07:45 숲속 배달부 빙빙	15:05 지식채널e	19:50 다크영향 길 위의 인생
08:00 덩동맹 유치원	15:15 클래스 e	20:4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출동! 슈퍼왕스	15:3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남태평양 파라다이스
08:45 방구대장 뽕뽕이	15:50 가만히, 10분	-태초의 낙원, 파푸아뉴기니>
09:00 뽕뽕뽕 뽕로로	16:0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21:30 한국기행
09:15 세계의 비밀 수호대 번개맨	16:15 개구쟁이 조이	<여러쁘다 꽃청춘 1부 나를 닮아 좋아>
09:30 마사와 노래해요	16:30 덩동맹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우리집 유치원	16:50 내 친구 문덕이	22:45 신계속의 맛터사이를 다이어리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23:35 클래스 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3일(음 3월 22일 辛亥) ☎ 010-9790-8237

36년생 전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 48년생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도 있으니 방심하지 말고 차질 없이 준비하라. 60년생 어떠한 행편에 놓이더라도 확실한 주관을 갖자. 72년생 소상하게 알기 전까지는 발설하거나 속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84년생 태산처럼 가만히만 있으면 될 일이다. 96년생 방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8, 54

37년생 오래 가지 않게 빨리 잠재워야 할 것이다. 49년생 모든 것을 치치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할 판세이다. 61년생 당대지사가 여의치 않으면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낫겠다. 73년생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불을 수도 있다. 85년생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 97년생 결연한 의지로 분명한 언행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행운의 숫자 : 47, 72

38년생 함계할 자리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다. 50년생 선수를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62년생 희비가 교차하는 하루이니 여러 곳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74년생 흥이 변해 길해지니 뜻대로 되리라. 86년생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이다. 98년생 파격적인 앙상을 열 수 있으니 변화의 조짐에 주목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4, 59

39년생 의견을 개진한다면 바람직한 반응이 있으리라. 51년생 영원한 비밀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63년생 공동적이어서 더불어 처리하게 된다. 75년생 단순히 판단하거나 무리한다면 실패할 수다. 87년생 중간에서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된다. 99년생 소신이 있어야 제대로 능력을 발휘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5, 61

40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좋다. 52년생 드디어 학수고대 해오던 결단의 시기가 되었느니라. 64년생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후회한다. 76년생 최악의 상태이니 계속 진행하라. 88년생 중북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00년생 햇대에 동지거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84

41년생 깊은 바다로 나아가야 할 때다. 53년생 파격적인 조치로 인한 이득의 폭이 굉장하다. 65년생 모르고 지냈으면 더 나았을 법한 비밀을 우연히 듣게 된다. 77년생 현재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활로가 트이게 된다. 89년생 시종일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절대로 무리하지 말자. 01년생 상당한 자금을 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64

42년생 길흉이 혼재하니 마음을 비우고 정진하라. 54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66년생 제대로 호평 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78년생 상당한 충격 속에서 자금을 받게 될 것이다. 90년생 잡다한 손익에 얽매이지 말고 진퇴를 분명히 해야 할 때이다. 02년생 지성으로써 시종일관한다면 궁극적으로 성취하리라. 행운의 숫자 : 39, 79

43년생 지금 힘이 들더라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55년생 솔선수범한다면 궁극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느니라. 67년생 그 자체로서의 의미에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겠다. 91년생 막연히 부추기는 이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03년생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0, 89

32년생 수양을 쌓고 지력을 닦는다면 길정을 맞이하리라. 44년생 중대한 고비에 와 있으니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56년생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으니 느긋하게 마음 먹자. 68년생 반드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빛을 보리라. 80년생 운로가 길하니 왕성한 추진력을 필요로 한다. 92년생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망하라. 행운의 숫자 : 26, 77

33년생 마지막 고비가 기다리고 있다. 45년생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57년생 한 곳에 몰입하다보면 주변 상황에 소홀해지기 쉽다. 69년생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81년생 선택하기가 참으로 난감한 입장에 되겠다. 93년생 다시 한 번 검토한다면 허점이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 56

34년생 외형에 현혹되다보면 큰일 나는 수가 있다. 46년생 차분하게 마음먹되 실행은 민첩하게 하자. 58년생 효과와 기능을 배가하는 특별한 상황이 설정 되리라. 70년생 초기에 시러 깊은 공을 들여야만 한다. 82년생 솔로가 없으니 체면은 배를수록 유익하다. 94년생 고찰이 선행되어야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2, 60

35년생 앞일까지 내다보고 결정하라. 47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따르도록 하라. 59년생 시기상조이니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71년생 현재의 상태와 유사하게 지속 될 것이다. 83년생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95년생 무심코 한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 심사일언하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41, 78